

研究論文

목적의 ‘-겠다고’에 대하여

채숙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 객원교수, 국어학 전공
suki77@snu.ac.kr

- I. 머리말
- II. 하나의 기능 단위로서의 ‘-겠다고’
- III. ‘-겠다고’의 특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 ‘-겠다고’는 간접인용구문에서 ‘-겠다고’로 끝나
는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태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고’¹⁾에 ‘의도, 추측’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겠다고’ 가운데는 그 전체가
‘-려고, -고자’와 같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1) 지금 그냥 와서 돈 몇 푼 벌겠다고 고생하는 거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²⁾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에서 밑줄 친 ‘돈 몇 푼 벌겠다고’는 간접인용구문
의 일부나 이유의 ‘-다고’가 쓰인 절로 해석되지 않으며, ‘돈 몇 푼
벌려고’와 같은 목적의 의미로 해석된다.³⁾ ‘-려고, -고자’와 같은 목적의

1)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고’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영희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밖으로 나갔다. (박만규, 1995: 770)

박만규(1995, 1996), 유명희(1997), 유현경(2002) 등에서는 이때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가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에 앞서 장경희(1987)에서는 이와 같은
절이 ‘구실’의 해석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구실’을 ‘사건과 인과관계를 지니는 발화’라
고 정의한 것으로 보아 이때의 ‘구실’은 ‘이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다고’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박만규, 「완형문 ‘-고’문의 동사보어/문장보어 구분」, 『관대논문집』 23호
(1995), 373-388쪽; 박만규, 「국어 문장보어 완형문의 통사-의미적 분석」, 『언어』
21권 3호(1996), 769-791쪽; 유명희, 「융합형 ‘-다고’와 ‘-답시고’에 대하여」, 『한국어
문학연구』 8호(1997), 152-188쪽; 유현경,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집(2002), 99-122쪽; 장경희,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집(1987), 487-
519쪽.

2) 이 글에서는 되도록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국어말뭉치 83만 1670어절(2001-2004년)
과 현대국어말뭉치 1111만 9814어절(2001-2006년)을 검색하여 추출한 예문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적합한 예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같이 인용구문의 보문자와 목적절 표지(purpose clause marker)가 관련된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Heine & Kuteva(2002: 91)에서는 불가리아
어에서 보문자 ‘če’가 목적절 표지 ‘če da’로 바뀐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가. Tja kaza, če šte dojde.

she said that FUT come:3:SG:PRES

‘She said that she would come.’

나. Xajde, preobleči se, če da izlezem naj-posle!

come:on change:clothes:IMP REFL that to go:out:1:PL:PRES at:last

‘Come on, change your clothes so that we can go out at last!’

어미들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나타내주며,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보다 먼저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⁴⁾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에서 선·후행절의 사태를 비교하였을 때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보다 선행하며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목표가 되므로 두 절의 관계 역시 이러한 목적의 어미가 보이는 특징에 부합한다.

그간 이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다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⁵⁾ 이와 같이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겠다고’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목적의 ‘-겠다고’는 간접인용구문의 일부나 ‘-다고’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겠다고’가 보이는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분석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어미와 같이 기능하는 단위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겠다고’를 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겠다고’가 하나의 단위로 같다고 하였을 때 이는 목적의 연결어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겠다고’가 절의 연결에 쓰일 때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 -고자, -자고’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불가리아어 외에 쿵토어(Kupto), 도곤어(Dogon)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 4) 이은경,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태학사, 2000), 242쪽; 이익섭, 『한국어 문법』(서울대출판부, 2005), 372쪽.
- 5) 남기십(1973)·장경희(1987)·안명철(1992)·이필영(1993)에서는 인용구문에서의 축약 또는 절단과 관련하여 ‘-다고’를 다루었고, 박만규(1996)·유현경(2002)에서는 ‘-다고’가 형성하는 절과 인용구문의 보어, 즉 피인용문과의 구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유명희(1997)·이금희(2006)에서도 ‘-다고’를 인용구문에서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나, 문법화된 어미로서 ‘-다고’가 어떤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었다. 남기십, 『국어완형보문법연구』(탑출판사, 1973); 장경희, 앞의 논문; 안명철,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2);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탑출판사, 1993); 박만규, 앞의 논문(1996); 유현경, 앞의 논문; 유명희, 앞의 논문;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2006).

II. 하나의 기능 단위로서의 ‘-겠다고’

문제의 ‘-겠다고’는 형태만을 보았을 때, 간접인용구문에서 ‘-겠다고’로 끝나는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태일 가능성도 있고, 이유의 ‘-다고’에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한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는 목적의 ‘-겠다고’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분석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곧 ‘-겠다고’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

1. 간접인용구문에 쓰인 ‘-겠다고’와의 차이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이 평서문일 때 종결어미 ‘-다’에 선어말어미 ‘-겠-’이 선행하고 여기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목적의 ‘-겠다고’는 피인용문의 ‘-겠다고’와 인용표지 ‘고’의 결합으로도 파악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분석될 수 없다.

첫째,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절은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니다.⁶⁾

(2) 가. 타라에서 다시 자기가 모든 것을 일구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끝나
잡아요.

나. 그래도 되게 안개 속을 뚫고서 천백고지를 올라가겠다고 그 꼬불꼬불한
대관령 같은 도로를 안개가 가득 차서 막, 차 감빡이를 켜놓고 우리 초보
여섯이서 깨갱대면서 올라갔는데……

위의 예들 가운데 (2가)는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 ‘-겠다고’가 쓰인 예이고 (2나)는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예이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겠다고’가 쓰였지만 (2가)의 ‘타라에서 다시 자기가 모든 것을 일구겠다고’가 인용동사⁷⁾ ‘다짐하다’의 보어로 파악되는 데 반해, (2나)의 ‘안개

6) 박만규(1995)와 유현경(2002)에서는 이유의 ‘-다고’가 인용동사의 보어, 즉 동사보어가 아님을 보인 바 있다. 박만규, 앞의 논문(1995), 373-388쪽; 유현경, 앞의 논문, 114쪽.

7) 이 글에서는 ‘얘기하다, 말하다, 물어보다, 부탁하다’ 등과 같이 발화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뿐 아니라 ‘생각하다, 느끼다, 믿다, 알다’ 등과 같이 인지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

속을 뚫고서 천백고지를 올라가겠다구'는 인용동사의 보어로 볼 수 없다. 바로 뒤에 인용동사가 쓰이지 않았으며, 거리를 두고 후행하는 동사 '올라가다'도 인용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2나)에 대해, '-겠다고' 바로 뒤에 '생각하고' 정도가 생략되고 '-겠다고'가 쓰인 절은 이들의 보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목적의 어미로 인정되는 '-려고'가 쓰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나. 그래도 되게 안개 속을 뚫고서 천백고지를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그 꼬불꼬불한 대관령 같은 도로를 안개가 가득 차서 막, 차 깜빡이를 켜놓고 우리 초보 여섯이서 깨갱대면서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려고'의 경우 이와 같이 '생각하고'가 생략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려고' 자체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며 연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준에서라면 실제로 문면에 나타나지 않은 동사를 근거로 하여 '-겠다고'만 굳이 '생각하다'가 생략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다.

둘째,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절은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고'와 달리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의문문에서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응될 수 없다.⁸⁾

(3) 가. 제가 아까 저, 시간이 되면 좀 쉬겠다고 그, 얘기했는데.

나.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4) 가. 인제 운동 삼아서 아침에 일찍 걸어 다니겠다고 오늘부터 나갔는데……

나. 그렇게 오늘부터 나갔는데……

다. {*뭐라고, 어떻게} 오늘부터 나갔니?

위의 예들 가운데 (3)은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 '-겠다고'가 쓰인 예이고 (4)는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예이다. 간접인용구문 (3가)의 경우 (3나)에서와 같이 '피인용문+고'를 '그렇게'로 대신할 수 있으며(박

도 인용동사로 본다.

8) 박만규(1995)에서는 이유의 '-다고'가 동사보어가 아니라 문장보어임을 보일 때에 '그렇게', '뭐라고', '어떻게'에 대응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다. 박만규, 앞의 논문(1995), 381-384쪽.

만규, 1993; 임동훈, 1995 등) (3다)에서와 같이 의문문에서는 이를 ‘뭐라고’나 ‘어떻게’로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4가)의 경우 (4나)에서와 같이 ‘-겠다고’가 쓰인 절을 ‘그렇게’로 대신하면 목적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대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4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고’가 쓰인 절은 의문문에서 ‘뭐라고’에 대응될 수 없으며, ‘어떻게’ 역시 의미 차이로 인해 대응될 수 없다.

셋째, 목적의 ‘-겠다고’에 존재하는 ‘고’는 간접인용구문의 인용표지 ‘고’와 달리 생략될 수 없다.⁹⁾

(5) 가.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않겠다) 약속했는데……

나. 그래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겠다고, *덜겠다) 불쑥 내민 말이 그 말이였다.

위의 예들을 보면 간접인용구문에 ‘-겠다고’가 쓰인 (5가)의 경우 인용표지 ‘고’를 생략해도 자연스러우나,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5나)의 경우 ‘고’는 생략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흔히 ‘라고’의 오용이라 지적되기는 하나 간접인용구문의 경우 인용표지로 ‘고’ 외에 ‘라고’도 쓰여 ‘-다라고’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목적의 ‘-겠다고’는 ‘-겠다라고’로 쓰일 수 없다.

(6) 가. 그리고 이, 칼 제임스는 여기서 처음 두 순서만을 논의에 끌어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해숙은 (가겠다고, *가겠다라고) 몸을 일으켰다.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는 인용표지 ‘고’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위의 (6가)에서와 같이 ‘라고’가 결합하여 ‘-다라고’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6나)에서와 같이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경우 ‘-겠다라고’와 같은 형태가 쓰일 수 없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목적의 ‘-겠다고’는 간접인용구문에서 피인용문의 ‘-겠다’와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9) 유현경(2002)에서는 이유의 ‘-다고’에서 ‘고’가 생략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현경, 앞의 논문, 116쪽.

2. 이유의 ‘-다고’에 ‘-겠-’이 결합한 형태와의 차이

형태상으로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에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목적의 ‘-겠다고’가 보이는 통사·의미적인 특성은 이유의 ‘-다고’가 보이는 특성과는 다르며, 여기에 쓰인 선어말어미 ‘-겠-’ 또한 일반적인 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겠다고’가 ‘-겠-’과 ‘-다고’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기능 단위로서 ‘-겠다고’를 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목적의 ‘-겠다고’가 이유의 ‘-다고’와 어떻게 다르며 이때의 ‘-겠-’은 보통의 ‘-겠-’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유의 ‘-다고’와 목적의 ‘-겠다고’의 차이

목적의 ‘-겠다고’가 단순히 ‘-겠-’과 이유의 ‘-다고’의 결합이라면 ‘-다고’가 지니고 있는 통사·의미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와 의미적인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다고’에서 보이지 않는 통사·의미적 제약을 보여 이와 같이 분석하기가 어렵다.

우선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와 의미 면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인다. 이유의 ‘-다고’의 경우 이유의 연결어미들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목적의 연결어미들로 바꿔 쓸 수 없다. 이에 비해 목적의 ‘-겠다고’의 경우 이유의 연결어미들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그 전체가 목적의 연결어미들로 대체가 자연스러워 이유의 ‘-다고’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이 잘 드러난다.

(7) 가. 아내는 돈 (번다고, 버느라고, *벌려고, *벌고자)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금희, 2006: 122)

나. 앞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이력서에 한 줄씩 늘려가 (보겠다고, 보려고, 보고자, *봐서, *보니까, *보느라고) 쓸데없이 워드 프로세서 일급 자격증 시험도 봤구요.

위의 예들 가운데 (7가)는 이유의 ‘-다고’가 쓰인 예이고, (7나)는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예이다. (7가)의 경우 ‘-다고’ 대신에 이유의 ‘-느라고’가 쓰일 수는 있으나 목적의 ‘-려고’나 ‘-고자’는 쓰일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7나)의 경우 ‘-졌다고’ 대신에 이유의 ‘-어서, -니까, -느라고’는 모두 쓰일 수 없으나 목적의 ‘-려고, -고자’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시간적 순서 역시 ‘-졌다고’가 의미적으로 목적을 나타냄을 잘 보여준다. 목적의 연결어미들의 경우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보다 먼저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¹⁰⁾ ‘-졌다고’ 역시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8) 이 사람들은 교육자가 되겠다고 사범대학을 다니고……

목적의 ‘-졌다고’가 쓰인 위의 예에서 선행절의 ‘교육자가 되’는 사태는 후행절의 ‘사범대학을 다니’는 사태가 먼저 일어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에 비해 이유의 ‘-다고’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9) 가. 어제는 시험공부를 한다고 밤을 꼬박 새웠다. (유현경, 2002: 102)
나. 그는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학교에 안 나왔다. (이금희, 2006: 122)
다. 오히려 손님이 많이 와서 이렇게만 별면 곧 발당을 세우겠다고 신나했었다.

이유 ‘-다고’가 쓰인 위의 예들에서 (9가)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9나)에서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에 선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9다)의 경우에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에 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다)에서와 같이 이유의 ‘-다고’ 앞에 ‘-졌-’이 선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에 반드시 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목적의 ‘-졌다고’가 쓰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

(10) 그럼 못 믿겠다고 나에게 살췌를 내주지 않을 것이여?

위의 예에서는 이유의 ‘-다고’ 앞에 ‘-졌-’이 쓰였는데 선행절의 ‘못 믿’는 사태가 후행절의 ‘살췌를 내주지 않’는 사태보다 뒤에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10) 이은경, 앞의 논문, 242쪽; 이익섭, 앞의 논문, 372쪽.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와 통사·의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가 보이지 않는 동일주어제약을 보이는데, 목적의 ‘-겠다고’를 이유의 ‘-다고’와 ‘-겠-’의 결합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는 설명될 수 없다.

(11) 가. 사장의 시킨다고 내가 할 거 같지?

나. 나는 나름대로 [*네가, *애개 공부해보겠다고 이제 사 가지고는 보고 있어두……

위의 예들 가운데 (11가)는 이유의 ‘-다고’가 쓰인 예이고, (11나)는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예이다. (11가)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사장’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나’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에 반해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11나)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후행절과 같은 ‘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일주어제약은 목적의 어미인 ‘-려고, -고자’가 보이는 특성으로, ‘-겠다고’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여야 이해가 가능한 통사적 특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와 의미적인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다고’에서 보이지 않는 통사·의미적 제약을 보여 선어말어미 ‘-겠-’과 이유의 ‘-다고’로 분석되기 어렵다. 이는 ‘-겠다고’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

2) ‘-겠-’의 특성

그간 ‘-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¹¹⁾ ‘추측(추단, 추정, 추량), ‘의도’ 외에 ‘가능성·능력’, ‘미래’, ‘기동상’ 등이 ‘-겠-’의 의미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문제의 ‘-겠다고’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며

11) 최현배, 『우리말본』(정음문화사, 1937/1955); 나진석, 『우리말의 때때감 연구』(과학사, 1971); 신창순, 「현대 한국어의 용언보조어간 ‘겠’의 의미와 용법」, 『조선학보』 65집(1972); 서정수, 「“겠”에 관하여」, 『말』 2호(1977); 이기용, 「‘겠’의 중의성 반론」, 『사대학보』(중앙대) 14집(1978); 임홍빈, 「‘-겠-’과 대상성」, 『한글』 170호(1980);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태학사, 1985); 한현중, 「현대국어의 시제체계의 수립과 그 제약 조건」, 『국어연구』 99호(1990); 장경희, 「서법과 양태」,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태학사, 1998), 261-303쪽; 임동훈, 「‘-겠-’의 용법과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집(2001), 115-147쪽;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4).

하나의 단위와 같이 기능하고 있으나, 이때의 ‘-겠-’에 대해서도 선어말어미 ‘-겠-’의 일반적인 의미 중 하나인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겠-’은 일반적인 의도의 ‘-겠-’과는 동사·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의도의 선어말어미 ‘-겠-’은 문맥이 주어지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는데, 목적의 ‘-겠다고’는 ‘편하다, 행복하다, 좋다, 친하다, 재미있다’ 등 비교적 다양한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박재연(2004: 76)에 따르면 의도의 ‘-겠-’은 행위 내용을 갖는 명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형용사와는 잘 결합하지 않고 주로 동사와만 결합하며, 형용사로 표현되는 상태가 문맥상 화자의 행위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는 일부의 경우에만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12) 가. *나는 내년엔 꼭 예쁘겠다. (박재연, 2004: 76)

나. 나는 끝까지 행복하겠다. (임홍빈, 1980=1998: 242)

(12가)는 의도의 ‘-겠-’이 형용사와 결합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이며, (12나)는 문맥에 따라 의도의 ‘-겠-’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임홍빈(1980=1998: 243)에서는 화자가 사태를 ‘자기 지배적(+self-controllable)’인 것으로 선택할 때 형용사와 결합한 ‘-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의도의 ‘-겠-’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은 상당히 문맥 의존적이며 제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의 ‘-겠다고’는 이러한 의도의 ‘-겠-’에 비해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의 유형이 다양하다. ‘편하다, 행복하다, 친하다, 재미있다, 배부르다’와 같은 주관형용사뿐 아니라 ‘시원하다’와 같은 일부 객관형용사까지도 결합이 가능하다.

(13) 가. 자기가 편하겠다고 애들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나. 자기 혼자 행복하겠다고 떠나놓고선……

다. 어쨌든 모르는 사람 붙잡고 혼자 친하겠다고 이런 인터넷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라. 저 혼자 재미있겠다고 없는 사람들한테 돈 뿌려가며 난봉질에, 거짓에, 사기에……

- 마. 기침은 정말 뭘 얼마나 잘 먹고 배부르겠다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바. 땀 뻘뻘 흘리는 상태로 내가 있는 냉당으로 저만 시원하겠다고 돌진해 오면 정신이……

또한 주어인칭제약에서도 ‘-겠다고’는 의도의 선어말어미 ‘-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도의 선어말어미 ‘-겠-’은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를,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를 취하고 3인칭 주어를 취하지 않는 데¹²⁾, 목적의 ‘-겠다고’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4) 가. [나는, *너는, *철수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나. [너는, 너는, *철수넌 기어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느냐? (박재연, 2004: 77)

‘-겠-’이 쓰인 위의 예들 가운데 (14가)는 평서문이고 (14나)는 의문문이다. ‘*’는 ‘-겠-’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인데, (14가)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만 의도의 의미가 성립하며 2인칭이나 3인칭일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는 가능하나 의도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문문인 (14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만 의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1인칭, 3인칭 주어일 때는 의도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겠다고’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 (15) 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 이 군은 군대 입대 전 시골 할머니에게 용돈을 벌어드리겠다고 주방 일꾼으로 일을 했다.
 나. 내가 이 잘사는 나라에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이민을 왔나?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들 가운데 (15가)는 평서문이고 (15나)는 의문문이다. 평서문인 (15가)에서는 3인칭이 주어로 쓰였고, 의문문인 (15나)에서는 1인칭이 주어로 쓰였다. 이와 같은 예들은 ‘-겠다고’에는 주어와 관련하여 의도의 ‘-겠-’과 같은 제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¹³⁾

12) 나진석, 앞의 책; 신창순, 앞의 논문; 이기용, 앞의 논문; 박재연, 앞의 논문.

13) 이와 같이 ‘-겠다고’가 의도의 ‘-겠-’과 같은 주어의 인칭제약을 받지 않고 쓰일 수 있는 것은, ‘-겠다고’가 간접인용구문에서 비롯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간접인용구문에서 의도의 ‘-겠-’이 피인용문에 쓰여도 상위문 주어의 인칭에 제약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의 ‘-겠다고’에 포함되어 있는 선어말 어미 ‘-겠-’은 의미 면에서는 일반적인 의도의 의미로 분석해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의도의 ‘-겠-’과는 서술어의 결합 양상과 주어인칭제약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비록 의미 면에서 선어말어미 ‘-겠-’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과 2.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의 ‘-다고’와 목적의 ‘-겠다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겠다고’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서 좀 더 효율적인 처리라고 판단된다.

III. ‘-겠다고’의 특성

전형적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 -고자’ 등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나타내며 대개 ‘하기 위해’의 의미를 갖는다.¹⁴⁾ 또한 이들은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특성을 갖는다.¹⁵⁾ ‘-겠다고’가 나타내는 의미도 이들과 다르지 않으며, ‘-겠다고’가 쓰일 경우 선·후행절 사태의 시간적 순서도 이들과 같다. 여기서는 목적의 ‘-겠다고’를 하나와 어미와 같이 설정하여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전형적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 -고자’ 및 ‘-겠다고’와 같이 인용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는 목적의 어미 ‘-자고’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겠다고’의 통사·의미적 특성

연결어미와 유사한 하나의 기능 단위로서 ‘-겠다고’는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인다.

첫째, ‘-겠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동일주어제약을 갖는다.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4) 이익섭, 앞의 논문, 372쪽.

15) 이은경, 앞의 논문, 242쪽; 이익섭, 앞의 논문, 372쪽.

(16) 언니가 [*내가, *내가 향수를 만들겠다고 아카시아 꽃을 담아놓은 병이 깨진 모양이었다.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를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리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겠다고’가 쓰일 경우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17) 수도권 살리겠다고 지방 (죽었다./죽이나?/*죽여라./*죽이자.)

위의 예를 살펴보면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경우 후행절로 평서문이나 의문문은 쓰일 수 있으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겠다고’의 후행절로 쓰이는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의 성격이 강하다.

(18) 너 같으면 인마, 부하 살리겠다고 너의 모가지에 칼 대겠냐?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에서 후행절은 ‘칼을 댈 수 없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판정의문문이 아닌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이다. ‘-겠다고’의 후행절로 오는 의문문은 이와 같은 수사의문문이 주를 이룬다.

넷째, ‘-겠다고’에는 신어말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다.

(19) 연을 (날리겠다고, *날렸겠다고) 아파트 단지를 만나절이나 이리저리 뛰며 다녔기 때문이란단.

위의 예에서 후행절에는 ‘-었-’이 쓰여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겠다고’ 앞에는 ‘-었-’이 쓰일 수 없다. 박재연(2004: 78)에서는 ‘-겠-’이 통합된 문장은 그 자체로 ‘의도’의 화행을 수행하는 수행문이며 ‘-겠-’은 과거의 의도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겠다고’ 앞에 ‘-었-’이 쓰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의도의 신어말어미 ‘-겠-’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겠다고’와 목적의 연결어미의 비교

여기서는 목적의 ‘-겠다고’를 전형적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 -고자’ 및 ‘-겠다고’와 같이 인용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는 목적의 어미 ‘-자고’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을 좀더 자세히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1) ‘-겠다고’와 ‘-려고, -고자’

3.1.에서 살펴본 ‘-겠다고’의 통사·의미적 특성 가운데 선·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점,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쓰일 수 없는 점,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는 점은 전형적인 목적의 어미 ‘-려고’나 ‘-고자’와 같은 특성이다.¹⁶⁾

(20) 가. *나는 영화를 만나려고 그는 거기로 갔다.

나. *철수는 책을 읽고자 영화는 도서관으로 갔다.(고영근·구본관, 2008: 494)

(21) 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갔다./갔니?/*가라/*가자.}(이익섭·채완, 1999: 408)

나. 책을 읽고자 도서관에 {갔다./갔니?/*가라.//*가자.}(고영근·구본관, 2008: 495)

(22) 가. 나는 학교에 {*갔으려고/*가겠으려고 버스를 탔다.

나. 철수는 책을 {*읽었고자/*읽겠고자} 도서관에 갔다.(고영근·구본관, 2008: 495)

위의 각 예의 (가)에서는 ‘-려고’가 (나)에서는 ‘-고자’가 쓰였다. (20)에서는 이들이 쓰일 경우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동일주어제약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1)에서는 이들이 쓰일 때 후행절로 평서문과 의문문은 올 수 있으나 명령문과 청유문은 올 수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22)에서는 이들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이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겠다고’가 보이는 것과 같다.

16) 중세국어에서는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의 어미가 ‘-오리라’에서 의도·목적의 ‘-오려’로 수의적으로 바뀌어 쓰인다(이현희, 1986: 26).

가. ‘衆生 보차디 아니호리라’ 盟誓 訶야 (월석 7: 48)

나. 내종내 물러두미 엮수려 제 盟誓 訶니 (능엄 3: 117)

‘-오리라’가 현대국어의 ‘-겠다’에, ‘-오려’가 ‘-려’에 대응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려고’나 ‘-고자’의 경우 ‘-겠다고’와 같이 후행절에 의문문이 올 때 수사의문문이 주로 쓰이는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 (23) 가. 아, 그거 혹시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나. 목사님을 변호하기 전에 진실을 알고자 노력했습니까?

‘-려고’와 ‘-고자’가 쓰인 위의 예를 보면 후행절에 일반적인 의문문도 자연스럽게 쓰임을 알 수 있다.

의미적인 면에서 ‘-겠다고’는 ‘-려고’나 ‘-고자’에 비해 주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¹⁷⁾ ‘-겠다고’의 후행절로 의문문이 올 때 수사의문문이 주로 쓰이는 특성도 이러한 ‘-겠다고’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 (24) 가. 이 녀석도 먹고 살겠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고자 오늘도 기어잡니다.
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보려고, 보고자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24가)에서 ‘-겠다고’가 쓰이면 ‘-려고’나 ‘-고자’에 비해 ‘먹고살다’라는 주어의 목적을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준다. (24나)는 ‘이 고생을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담긴 수사의문문인데 여기에 ‘-겠다고’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영화를 보다’라는 주어의 목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 ‘-겠다고’와 ‘-자고’

인용구문에서 발달된 ‘-자고’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인다.¹⁸⁾

17) 유명희(1997), 이금희(2006) 등에서는 이유의 ‘-다고’는 ‘-어서’와 달리 선행절 내용이 참임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명희, 앞의 논문, 163-164쪽; 이금희, 앞의 논문, 124-126쪽.

가. 일을 잘 못했다고 야단맞았어요. 제 생각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나. 일을 잘 못해서 야단맞았어요. 제 생각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유명희, 1997: 163)

18) 채숙희(2011)에서는 ‘-자고’가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임을 증명하고 그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의문문에서 ‘뭐라고’나 ‘어떻게’에

(25) 대화하자고 올라간 사람한테 일단 내려오라니…….

위의 예에 쓰인 ‘-자고’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된 형식이라기보다는 연결어미로 파악된다. 이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목표나 방향이 됨을 나타내며 ‘-려고’나 ‘-고자’와 대치가 가능한 점에서 목적의 연결어미라 할 수 있다.

‘-겠다고’가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은 ‘-자고’와 대체로 일치하여 서로 대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고’ 역시 동일주어제약이나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쓰일 수 없는 점,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는 점은 전형적인 목적의 어미 ‘-려고’나 ‘-고자’와 같으나, 후행절로 수사의문문이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¹⁹⁾

- (26) 가. 난 마누라를 나, *너, *그 사람 편하자고 요양원으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
나. 혼자 살아남자고 {떠날 수가 없었다/떠나니?/*떠나라/*떠나자.
다. 잠시 {행복하자고/*행복했자고 사랑이란 걸 했습니다.
라. 지금 편하자고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자고’가 쓰인 위의 예들 가운데 (26가)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6나)에서는 후행절로 평서문이나 의문문이 쓰일 수 있으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6다)에서는 ‘-자고’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쓰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라)는 ‘-자고’의 후행절로 수사의문문이 자연스럽게 쓰임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앞에서 살펴본 ‘-겠다고’의 특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고’의 경우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고²⁰⁾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 데 비해²¹⁾, ‘-겠다고’의 경우 이러한

대용하지도 않는 점, 형용사가 선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점, ‘고’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 ‘-자라고’와 같은 연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자고’가 쓰인 절을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식과 구분하였다. 채숙희,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82회 전국학술대회(2011. 4. 16), 1-14쪽.

19) 이금희, 앞의 논문, 131쪽.

20) 이필영, 앞의 논문, 190쪽; 이금희, 앞의 논문, 131쪽.

21) 채숙희(2011)에 의하면 추측 표현이 쓰이거나 소설, 신문 기사와 같은 문어체 텍스트에서는 3인칭도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채숙희, 앞의 논문, 10쪽.

가. 친구 납편도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 것이겠지만……

제약이 없다.

(27) 가. {나, *당신, *그 사람} 살자고 황후폐하를 죽일 수는 없다.

나. 독도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나, 너, *개} 편하자고 일본식으로 하고 싶냐?

‘-자고’가 쓰인 위의 예들 가운데 (27가)는 평서문이고 (27나)는 의문문이다. (27가)에서 주어는 1인칭 ‘나’인데 이를 ‘당신’이나 ‘그 사람’ 같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바꿀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7나)에서는 주어가 2인칭 ‘너’인데 1인칭이나 3인칭은 쓰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겠다고’의 경우, 이와 같은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28) 나의 사랑하는 제자 이 군은 군대 입대 전 시골 할머니에게 용돈을 벌어 (드리겠다고, *드리자고) 주방 일꾼으로 일을 했다.

‘-겠다고’가 쓰인 위의 예문은 평서문인데 주어는 3인칭이다. 이를 ‘-자고’로 바꿀 수 없다는 데에서 ‘-겠다고’와 ‘-자고’의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선행하는 서술어의 세부적인 유형에서 목적의 ‘-자고’와 ‘-겠다고’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²²⁾ 예를 들어, 형용사 ‘좋다’는 ‘-자고’와는 쓰이나 ‘-겠다고’와는 쓰이지 않는다.

(29) 나 {좋자고, *좋겠다고} 여행 가는 건데 계획부터 스트레스.

‘-자고’ 앞에 형용사 ‘좋다’가 쓰인 위의 예의 경우, ‘-자고’를 ‘-겠다고’로 바꿔 쓸 수 없다. 좀 더 많은 예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좋다’ 정도만이 ‘-자고’와 ‘-겠다고’가 결합에 차이를 보이는 서술어로 파악된다.

나. 부모는 온라인상의 댓글에서 돈이나 벌자고 이 책을 낸 것이라는 비판도 듣는다.
22) 그 외에 ‘-자고’와 ‘-겠다고’가 차이를 보이는 예로 ‘죽자고’와 같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자고’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겠다고’와 바꿔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자고’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을 듯이’와 비슷하게 비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웃자고 만든 건데 {죽자고, *죽겠다고} 덤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겠다고’가 그 전체로 목적을 표현하는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목적의 ‘-겠다고’는 형태상으로 ‘-겠다고’로 끝나는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태이나 이유의 ‘-다고’에 의도의 ‘-겠-’이 결합한 형태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간접인용구문에서와 달리 ‘-겠다고’가 쓰인 절이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니며,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고, 의문문에서 ‘뉘라고’나 ‘어떻게’에 대응될 수 없다. 또한 ‘-겠다고’의 ‘고’는 간접인용구문의 인용표지 ‘고’와 달리 생략될 수 없고, 간접인용구문에서 보이는 ‘-다라고’와 같은 연쇄, 즉 ‘-겠다라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에 의도의 ‘-겠-’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없다. 이는 목적의 연결어미들과 대치가 가능한 점,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 동일주어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유의 ‘-다고’와는 차이가 있으며 목적의 연결어미들에 가깝다. 또한 ‘-겠다고’에서 ‘-겠-’은 의미적으로 의도의 ‘-겠-’으로 분석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주어인칭 제약이 없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도의 ‘-겠-’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실은 목적의 ‘-겠다고’를 간접인용구문의 일부나 선어말어미 ‘-겠-’과 이유의 ‘-다고’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이 다루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목적의 ‘-겠다고’를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이 설정하여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동일주어제약이나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쓰일 수 없는 점,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는 점에서 전형적인 목적의 어미 ‘-려고’나 ‘-고자’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겠다고’는 후행절에 의문문이 올 때 수사의문문이 주로 쓰이며, 주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목적의 ‘-겠다고’가 보이는 이와 같은 특성은 목적의 어미 ‘-자고’가 보이는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들은 많은 경우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고’의 경우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겠다고’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결합하는 서술어의 유형에서 ‘-자고’와 ‘-겠다고’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적의 ‘-겠다고’를 하나의 기능 단위로 파악해보면, 단순히 ‘-겠-’과 ‘-다고’의 결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현상이 포착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얻은 결과는 교육이나 사전 기술 등과 같이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영역에서 유용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의 ‘-겠다고’는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이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의미적으로 의도의 선어말어미 ‘-겠-’의 분석이 가능하여 완전히 어미화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문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의 ‘-겠다고’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문법화는 이유의 ‘-다고’로부터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 종결어미와 인용표지 ‘고’의 결합에서 곧바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했다. ‘-겠다고’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겠다고’가 문법화되는 과정 및 이에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나진석, 「국어 움직씨의 때매김 연구」. 『한글』 134호, 1965. [나진석(1971)에 실림, 1-137쪽.]
- _____,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1971.
-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1973.
- 남기심·고영근·이익섭 공편, 『현대국어문법』.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5.
- 박만규, 「완형문 ‘-고’문의 동사보어/문장보어 구분」. 『관대논문집』 23호, 1995, 373-388쪽.
- 박만규, 「국어 문장보어 완형문의 통사-의미적 분석」. 『언어』 21권 3호, 1996, 769-791쪽.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서정수, 「“겠”에 관하여」. 『말』 2호, 1977. [서정수(1990)에 실림, 185-205쪽.]
- _____, 『국어 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0.
- 신창순, 「현대 한국어의 용언보조어간 ‘겠’의 의미와 용법」. 『조선학보』 65집, 1972. [남기심 외 편(1975)에 실림, 145-163쪽.]
- 안명철,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유명희, 「융합형 ‘-다고’와 ‘-답시고’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8호, 1997, 152-188쪽.
- 유현경,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집, 2002, 99-122쪽.
-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이기용, 「‘겠’의 중의성 반론」. 『사대학보』(중앙대) 14집, 1978. [이기용(1998)에 수정되어 실림, 193-208쪽.]
- _____, 『시제와 양상: 가능세계 의미론』. 태학사, 1998.
- 이은경,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2000.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 출판부, 2005.
-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3.
- 이현희,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대 논문집』 3집, 1986, 191-227쪽.
- 임동훈, 「‘-겠-’의 용법과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집, 2001, 115-147쪽.
- 임홍빈, 「‘-겠-’과 대상성」. 『한글』 170호, 1980. [임홍빈(1998)에 실림, 231-269쪽.]
- _____, 『국어 문법의 심층 I』. 태학사, 1998.
-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태학사, 1985.
- _____,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집, 1987, 487-519쪽.
- _____, 「서법과 양태」.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1998, 261-303쪽.
- 채숙희,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82회 전국학술대회, 2011. 4. 16, 1-14쪽.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55.

한현중, 「현대국어의 시제체계의 수립과 그 제약 조건」. 『국어연구』 99호, 1990.

Heine, B. and T. Kuteva,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겠다고’가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형태나 이유의 연결어미 ‘-다고’와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한 형태가 아닌, 그 전체로서 목적의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연결어미와 같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이 하나의 기능 단위로 파악될 때 ‘-겠다고’가 통사·의미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를 전형적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나 ‘-고자’, 인용구문에서 발달된 것으로 파악되는 연결어미 ‘-자고’와 비교해보았다.

목적의 ‘-겠다고’가 쓰인 절은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과 달리 ‘-겠다고’가 쓰인 절이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니며,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고, 의문문에서 ‘뉘라고’나 ‘어떻게’에 대응될 수 없다. 또한 ‘-겠다고’의 ‘고’는 간접인용구문의 인용표지 ‘고’와 달리 생략될 수 없고, 간접인용구문에서 보이는 ‘-다라고’와 같은 연쇄, 즉 ‘-겠다라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목적의 ‘-겠다고’는 이유의 ‘-다고’와는 차이를 보이며, 선어말어미 ‘-겠-’도 일반적인 쓰임과는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이유의 ‘-다고’와 선어말어미 ‘-겠-’의 결합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기능 단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겠다고’는 목적의 연결어미들과 대치가 가능한 점,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 동일주어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유의 ‘-다고’와는 차이가 있다. 목적의 ‘-겠다고’에서 ‘-겠-’은 의미적으로 의도의 ‘-겠-’으로 분석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주어인칭제약이 없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도의 ‘-겠-’과는 차이를 보인다.

목적의 ‘-겠다고’가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으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점,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는 점, 후행절로 쓰이는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겠다고’의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 전형적인 목적의 연결어미 ‘-려고’나 ‘-고자’와 유사하나, 후행절에 의문문이 올 때 수사의문문이 주로 쓰인다는 점, 주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은 이들과 ‘-겠다고’의 차이점이다. 이는 목적의 연결어미 ‘-자고’가 ‘-려고, -고자’와 보이는 차이점이기도 한데, 목적의 연결어미 ‘-자고’는

‘-겠다고’와 매우 유사하며 많은 경우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고’의 경우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겠다고’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차이가 있다. 또한 결합하는 서술어의 유형에서 ‘-자고’와 ‘-겠다고’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고일 2011. 7. 11.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7.

주제어(keyword) 연결어미(conjunctive ending), 목적(purpose), 간접인용구문(indirect speech),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이유(reason)

